

이 한겨울에 ... 억울한 근로자들

영산강 3공구 사업 ... 공사 하고도 임금 36억 못받아

영락공원 제2봉안당 건립비 미지급 ... 대책마련 시급

공사를 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위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이들은 올해 시행에 들어간 '광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도 적용 받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6일 지역 건설업체에 따르면 영산강 살리기 사업 3공구 공사를 맡은 E건설이 지난 4일 부도 처리됐다. 이 업체는 영산강 3공구 원도급업체인 D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지난해 5월부터 공사를 맡아왔다.

E건설은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부터 덤프트럭 기사 300여명에게 취

야 할 장비대금 등 36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발주처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체불액 36억원 중 16억원 가량은 E건설에 아직 지급하지 않아 원청업체인 D건설이 지급하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머지 20억원은 기사들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할 주체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 “원청업체와 익산국토청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며 공사를 중단한 채 7일부터 나누시 영산강 현장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

방법이다.

이에 대해 익산국토청 관계자는 “기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D건설과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사는 D건설이 직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도시공사 영락공원 제2봉안당 건립공사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사례가 발생했다.

봉안당 건립공사에 아스콘을 납품한 D산업 근로자들이 7개월째 납품대금 6100만원을 받지 못해 7일부터 도시공사 앞에서 항의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D산업은 봉안당 공사대금 지급을

둘러싸고 원청업체인 G건설과 하도급을 받은 H건설간 갈등으로 납품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D산업은 지난해 10월 계약 당사자인 H건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에 ‘물품대금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지만 E건설의 이의신청으로 아직까지 대금을 받지 못했다.

D산업 근로자들은 “발주처인 광주시도시공사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며 도시공사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7일부터 항의시위를 벌일 방침이다.

민간업체에서도 공사 대금 미지급에 따른 반발이 거세다.

최근 개장한 H호텔의 시공사인 G산업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기자회견을 계획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건설기업 체감 경기지수 다시 하락

지난달 67.9 ... 전달비 5.8P ↓

건설기업의 체감 경기지수가 4개월 만에 다시 하락했다.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기준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를 조사한 결과, 전달에 비해 5.8포인트 하락한 67.9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지난해 8월(50.1)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하며 11월 73.7까지 회복했으나 지난달에 다시 70선 밑으로 떨어졌다.

CBSI는 기준치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건설연 이흥일 연구위원은 “통상 12월에는 공공공사 발주 물량이 늘어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작년 연말에는 공공공사 발주 물량이 예년보다 줄었고, 아파트 분양 비수기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체감경기가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체별로는 대형업체 지수가 76.9로 전 달보다 14.8포인트 하락했고, 중견업체는 70.4로 10.4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은 중소건설업체 지수는 11월 대비 9.8포인트 상승해 54.4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 1월 CBSI 전망치는 12월 실적 대비 9.6포인트 상승한 77.5로 예상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가계·기업 대출문턱 더 높아진다

시중銀 대출태도지수 급락

가계와 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한국은행이 산업,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행태 서비스(조사) 결과’에 따르면 1.4분기 은행의 종합 대

출태도지수는 8로 전분기 16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지수가 높을수록 은행들이 대출에 적극적이라는 의미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13으로 전분기보다 9포인트 하락했으며 대기업과 가계일반자금은 각각 전분기 6에서 1분기 3으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기아차는 6일 경기도 화성 롤링힐스에서 ‘전국 지점장 판매 결의대회’를 열고 올해 내수 점유율 35% 달성을 다짐했다. (기아차 제공)

기아차 “올 내수시장 35% 점유”

전국 지점장 판매 결의

기아자동차는 6일 올해 내수 점유율 목표표를 35%로 잡았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이날 경기도 화성의 롤링힐스에서 ‘전국 지점장 판매 결의대회’를 열어 이같은 내수 판매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서영중 사장은 격려사에서 “기아차는 지난해 내수시장 점유율 33.1%로 창사 이래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며 “올해 다시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쓰자”고 격려했다.

기아차는 지난해 국내시장에서 전년 대비 17.4% 증가한 48만4512대를

판매해 최대 실적을 올렸다.

기아차는 올해 K시리즈와 R시리즈에 대한 판매 강화는 물론 조만간 출시 예정인 신형 모닝과 경형 크로스오버차량(CUV), 프라이드 후속 모델을 통해 내수 점유율 35%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명품 브랜드 육성을 통한 시장지배력 확대 ▲차별화된 고객 각 동 마케팅을 통한 기업이미지 제고 ▲최고의 명품 고객응대 서비스 실천 ▲영업 인프라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신안 천일염·와인·한우·죽방멸치

설 선물세트 ‘눈길’

설(2월3일) 앞두고 지역 백화점들이 고가의 선물세트부터 희귀성과 실용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이색적인 선물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나섰다.

6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두바이 7성급 호텔인 버즈알아랍호텔의 총주방장으로 일한 경력으로 유명한 스타 셰프 에드워드 권이 선물 제작에 참여한 ‘신안 명품 천일염 세트’(8만9000원)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에드워드 권 리미티드’, 전통방식으로 만든 ‘토관천일염’, ‘비금 유네스코 토관염’, ‘함초 천일염’으로 구성됐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경북 울릉도 700m 이상 고지대에 쌓인 겨울 눈 속에서 자란 자연산 뽕명미와 전호나물, 섬터덕으로 만든 ‘울릉도 장아찌 세트’(10만원)와 수심 30m이상 심해에서만 사는 거제도 명물 외포대구를 해풍에 말린 ‘거제 외포 건대구 세트’(20만원)를 판매한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귀족 멸치’로 불리는 ‘죽방멸치세트’(40만원)를 내놔다. 죽방멸치는 경남 남해군 연안에 설치된 죽방림 시설에서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 원시어업 방식으로 잡은 최고급 멸치로, 특유의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고 고소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



신안 명품 천일염



와인



홍삼정전



죽방멸치

이다.

고가의 선물세트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영광에 위치한 신세계 목장에서 철저한 품질관리로 사육한 한우 1+ 등급 구성한 ‘명품목장 한우’(95만원)를 판매한다.

또 1913년 까뮤가의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만든 꼬냑 ‘까뮤쥬빌레’(180만원)와 프랑스 보르도에서 생산된 와인 중 샤토 로셀드(155만원) 등도 선보였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33cm 이상 특대 굴비 10마리로 구성된 ‘현대 명품 굴비 매’(200만원)를 비롯해 뿌리삼 중에서도 최고급으로 꼽히는 ‘천삼’을 100% 농축한 ‘홍삼정 전’(105만원)을 내놔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고배 풀린 생필품 가격

고무장갑·밀가루 등 시중 유통 80개종 20개 올라 ... 서민가게 큰 부담

주요 생필품 가격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고 있어 서민 가게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소비자원 T-Gate에 따르면 정부가 소비자원을 통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80여개 주요 생필품의 2010년 12월 마지막 주(조사시점 : 2010년 12월 28~29일) 가격을 조사한 결과 20여개 제품이 1주 전보다 상승했다.

이상기온에 따른 작황 부진, 국제원자재 및 원유 가격 상승을 관련 업체들이 해당 품목에 반영하면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

12월 마지막 주에 전 주에 비해 가

장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은 고무장갑 ‘PASS 중형 고무장갑’으로 1개당 1662원에서 2007원으로 20.7%나 올랐다. 밀가루 ‘곰포 중형 밀가루’는 100g당 96원에서 109원으로 13.5%, 두루마리 화장지 ‘깨끗한 나라 벗꽃 3겹 데코’는 1롤당 650원에서 728원으로 12.0% 상승했다.

마요네즈 ‘고소한 마요네즈’(9.8%), 두루마리 화장지 ‘깨끗한 나라 순수 3겹 데코’(9.2%), 참기름 ‘고소한 참기름’(5%), 핸드로션 ‘니베아 SOS’(4.7%), 키타타일 ‘깨끗한 나라’(4%), 마요네즈 ‘고소한 골드 마요네즈’와 치즈 ‘남양유업 드빈치’(2.8%),

주방세제 ‘CJ 챔그린’(2.5%)도 전 주에 비해 가격이 많이 뛰었다.

이외 종이 기저귀 ‘뉴하스골드4’(2.3%), 돼지고기 삼겹살(1.6%), 물휴지 ‘깨끗한 나라’(1.4%), 식빵 ‘기린 바로구워 토스트’(1.2%), 소금 ‘꽃소금’(1.0%), 구강청정제 ‘가그린 레굴라’(0.9%), 즉석우동 ‘가쓰오 우동 4인용’(0.8%) 등도 전주보다 가격이 올랐다. 반면 2010년 12월 마지막 주에 전 주보다 가격이 떨어진 제품은 세면용비누 ‘두보레 장미비누’(-20.7%), 일반면도날 ‘PACE 6’(-9.1%), 과일주스 ‘멜론트 스카시 플러스’(-7.8%) 정도였다.

/연합뉴스

주택대출 5조 육박

4년만에 최고

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 액수가 5조원에 육박하면서 4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4조9000억여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6년 11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5조1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최대규모다.

이에 따라 금융원의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379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원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지난 2008년의 월평균 증가액은 3조원, 지난해는 3조6000억원이었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2,077.61 (-4.94)
▲ 코스닥지수	527.64 (+3.83)
▲ 금리 (국고채 3년)	3.58% (+0.08)
▲ 원·달러 환율	1,119.60원 (-6.4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가발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초슬림!!

스킬과 망이 초극대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가발 50만원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 등 가발의 모든 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입)
본 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기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1

2

3

4

시공전 / 단열배이스키트시공

단열배이스키트 / 트라이슈머시공

트라이슈머 발코닝 시공

옥상 시공 후

특허방수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시트방수

2중단열 방수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전천후 시공성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1. 여름철에는 전기료 절감 30~40%

2. 겨울철에는 난방비 절감 15~20%

3. 옥상정원을 조성했을 때와 같은 단열효과를 냅니다.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본사 전국모델

탈렌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